

중견기업 육성  
국제 컨퍼런스 만찬

국 문

# 축 사

2013. 4. 11.

KB 금융그룹 회장

어 윤 대

## 1 인사말

---

중앙일보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전세계가 경기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적 화두로 부상한 요즘  
중견기업 육성과 관련한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공일 세계경제 연구원 이사장님과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저희 KB금융그룹이 후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것이 엇그제 같았는데  
서울에도 개나리며 목련이 피는 걸 보니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꽃샘추위가 시샘을 부리고 있으나  
남쪽 지방에는 꽃이 만발하고  
봄을 즐기는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도 계절이 바뀌듯 봄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직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작년 GDP성장률은 2%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는  
그 동안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경제위기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유로 존 경제는 더욱 어려워,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독일일 것입니다.

유로 존 주요 국가 중 독일은 유일하게  
지난해 4분기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주요 글로벌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도 독일만이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 존 경제가 어려운 재정위기를 견디고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것도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 준  
독일 경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독일이 유로 존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진  
‘히든챔피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지만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시장점유율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수가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원이 적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또한  
세계경제 불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해야 하지만

독일과 같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개최되는 컨퍼런스가  
독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히든챔피언’ 육성과 관련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우수 사례를 배우고 정보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 3 KB금융그룹의 Hidden Star 발굴 및 육성

저희 KB금융그룹이  
글로벌 ‘Hidden Star 500’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히든챔피언’에 KB의 상징인 ‘스타(Star)’를 붙여  
‘히든스타’라고 이름 지었는데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우량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50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27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1조 5천억이 넘는 여신이 지원되고  
외국환 거래 등 금융지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세무, 회계, 자산관리서비스와  
KB의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인  
‘KB굿잡’을 통해 우수인력 알선과 채용장려금 지원 등  
비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출기업의 외환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환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외환연구원’과 함께  
체계적인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KB금융그룹은  
‘히든스타 500’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의 중소·중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히든챔피언’의 저자 헤르만 지몬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한 국가의 성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히든챔피언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일류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느냐  
아니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다시 정체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오늘의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수출강국인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우리 중견기업들의 미래를 조명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